



법무보호공단 전북,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9일 전주시야박물관에서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더불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과 한명옥 전북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주시의 사회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에 연석 지원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지난 4월 7일, 관내 경로당과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13명에게 연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으로 더 짧게' 미용 프로그램은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연석약 후원물품과 재능기부자 이금숙 미용사의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단순 후원물품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후원 물품과 재능기부자를 연결하여 관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개발 및 지원한 것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재능기부자 이금숙 미용사는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눌 수 있어 보람찬 시간이었으며, 연석으로나마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이 웃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희망풍차 결연지원 첫 물품 전달식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관내 취약계층 27가구를 '희망풍차 결연지원 사업' 대상자로 신규 연계하고, 첫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과 적십자 봉사원이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정서지원과 물품지원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돕은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세대를 연계, 선정된 가구에 매월 라면, 백미 등 식료품 꾸러미가 전달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 만큼 더 힘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등, 안전재난대응 협약 체결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는 지난 8일, 인월19안전센터(센터장 우성순)와 지역 내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난대응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화재 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래를 향한 도전, 나의 길을 찾다’

장수교육지원청, 관내 번암초·중·장수중 전교생 대상 이강만 CEO 진로특강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10일 번암초·중학교와 장수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진로멘토 프로그램 '장수인을 만나다'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우리 지역 출신 이강만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사장이 강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강만 사장은 평소 나눔과 배려의 실천으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학생들에게 회사 견학 등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신의 진로 여정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보물지도로 만들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조언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직접 보물지도를 그려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장수중학교 학생 이승은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강사님의 조언을 들으며 방향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영곤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수교육지원청이 학생 중심의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강은 지역 출신 유력 인사를 직접 초청해, 지역과 학교를 잇는 진로 교육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교육장의 기획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인권진흥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김정희)은 10일 세미나실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과 함께 '광역단위 거버넌스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북의 여성정책 및 피해지원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여성정책피해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피해자 지원 정책 선도 및 국내의 확산'의 일환으로 진흥원의 여성정책방지 정책 및 지원사업을 공유했다. 진흥원에서는 남정임 팀장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강화사업, 여성정책방지기반 역량 강화 사업, 여성정책방지 지원사업, 여성정책방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백미륵 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 현황 및 피해지원 정책현황과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방지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전북지역의 여성정책방지기반인 전주여성정책상담소, 전주여성전화, 전주여성전화 센터,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긴급



전화 1366전북센터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여성정책 피해지원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현장기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여성정책피해지원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전북지역의 여성가족정책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일선 현장의 기관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의회, 산불 이재민 위해 성금 346만원 기탁

정읍시의회가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346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집과 생계 기반을 잃은 소성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의원들과 시의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일 의장은 "우리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를 겪은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시의회에서 보내주시는 진심 어린 성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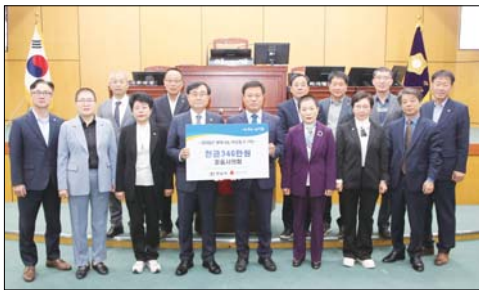
남원 죽향동 통장협의회,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남원시 죽향동 통장협의회(회장 장문영)는 영남권 대형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지난 8일, 통장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문영 협의회장은 "피해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전했으며, 사매면 이오농장(대표 조흥환)에서도 지난 4월 4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사매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매면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는 이오농장은 명절마다 면민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있으며, 조흥환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을 불문하고 큰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농장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 동충동 8동 경로당 주민들이 지난 9일 최근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2만 원을 기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교육 실시

순창군이 지난 9일 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과 민간 보조사업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탐) 이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편리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보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조사업을 신청·집행·정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다.

이 시스템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조금의 중복 수령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나누어 실시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창업 기업, 대학 발전기금 2000만원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8개 창업 기업이 대학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 기탁은 후배 창업가 양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대학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기업은 △조아소프트(대표 진영섭) △아이디어파트너스(대표 김수환) △시그널(대표 유민수) △노아팻바이오(대표 백덕) △코볼(대표 김혜미) △승원(대표 고승호) △오렌지랩(대표 김원태) △블레스미(대표 이용진) 등 총 8개 기업이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조아소프트 진영섭 대표는 "전주대학교 창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창업 초기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 발전기금은 곧 RISE 창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타 창업 기업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서림지구대 생활안전협동 등,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기탁

서림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동기)와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대장 이정열)는 부안군청 3층 군수실에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에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1,300장(400만원 상당)을 지난 7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달된 스티커는 대한노인회를 통해 부안군 내 어르신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는 고령 운전차 차량에 부착을 통해 주변 운전자들의 주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청년정책협의체 이현미 위원장, 장학금 기탁

무주군청년정책협의체 이현미 위원장이 지난 10일 무주군 교육발전정책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현미 위원장은 "무주청년 키움재단 통장이 만기가 돼 얼마 전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았다"라며 "군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지역 학생들과 나누는 것으로 선순환의 씨앗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석태 MOA건설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탁

재대전무주군민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석태(주)MOA건설 대표가 10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에서 태어난 기석태 대표는 "나를 낳고 키워준 고향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지는 것 같다"라며 "가족, 친지,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무주가 항상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고향사랑기부금에 담아 전한다"라고 밝혔다.

기석태 대표는 지난해 2월 재대전무주군민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무주군 농특산물 및 만들품 축제 홍보 등에 앞장서는 등 고향 무주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